

주거공간의 안전, 편익보다 우선되어야



글 | 이윤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아파트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인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로 인해 화재발생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는 화재 방지와 유사시 대피공간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지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생활의 편의성과 미적 쾌적함을 중시하기 보다는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이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의 설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계절이다.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고에 대한 기억들은 뒷전이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불감증은 잘 치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 발표한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한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전이다. 주거공간은 무엇보다도 안전하여야 한다. 생활의 대부분을 그 안에서 지내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가족 간의 사랑이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순

간의 실수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귀중한 목숨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며, 이웃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경험도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지가로 인해 주거용 건물의 고층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는 안전관리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거공간의 안전을 위한 아파트의 발코니도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아파트의 발코니가 건축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여 이를 단순히 보너스 공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의 발코니는 화재시 피난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발코니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한 생명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코니를 주거 편의를 위해서 확장한다면 안전상으로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화재는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화재층보다는 바로 직상층에서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화재층에서의 사망자가 31.9%인 반면 직상층에서의 사망자가 48.7%이었다. 2003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부 6세대에 연소가 확대되어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주거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생명선을 없애는 것과 같다. 특히 발코니가 개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만 쌓아 놓아도 화재시 10분 안에 발코니 내부의 온도가 900℃ 이상이 되고 15분 정도면 직상층으로 연소가 확대된다는 국내에서의

실제 화재실험 결과도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6년 히로시마에 위치한 20층 아파트의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과 19분 만에 최상층인 20층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발코니를 거실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발코니를 실주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코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화염 차단벽(스팬드럴)과 화재차단 기능을 가진 돌출바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되 소화시설의 보강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건축물은 예전의 소방법령이 적용되어 화재안전 측면에서 신축 건물보다 더욱 취약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주택을 단순히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으며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아니다. 생활 편의성, 건강과 더불어 예술성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안전이다. 안전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고층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안전의 확보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

일반인의 식견으로 이런 세세한 측면까지 고려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그 제목이 주는 설렘만큼이나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안전은 대충해서 확보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